

일양약품, 백혈병 신약후보물질 임상 승인

일양약품은 백혈병 신약 후보물질 <IY5511>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인체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6월11일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혈액암 전문가 김동욱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교수 주관으로 1상과 2상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.

임상시험은 국내외 10개 기관에서 진행되며 총 소요기간은 1년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.

IY5511은 다국적 제약사의 백혈병치료제 <스프라이셀>이나 <타시그나>와 같은 차세대 글리벡으로 분류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.

차세대 글리벡 또는 슈퍼 글리벡은 당초 글리벡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됐으나 글리벡에 비해 약효가 강해 장기적으로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일양약품에 따르면, IY5511은 동물실험 결과 글리벡 뿐만 아니라 다른 슈퍼 글리벡보다 약효가 뛰어나면서 부작용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일양약품은 IY5511가 희귀질환 항암제로 적용 받으면 2상 임상 완료 후 조기에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.

<화학저널 2008/06/11>